



지난 6일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광주 출신의 한류스타 유노윤호의 일본 팬 80여명이 유노윤호가 이우진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한 커피잔,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일 폐막한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3'은 많은 갤러리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컬렉터들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김진수기자 jeans@

다양한 작품 많았지만 컬렉터 확보에는 실패

'아트광주13' 결산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3'이 8일 폐막했다.

올해 4회 행사를 치른 '아트광주'는 많은 갤러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마케팅 부족으로 컬렉터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8일 아트광주13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기간(4~8일) 김대중컨벤션 센터를 찾은 관람객은 2만700여명(잠정 집계)으로 지난해 1만5000여명(공식 집계)보다 5700여명이 증가했다.

조직위는 올해 행사에 유명화랑인 가나아트, 학교재 등을 비롯해 그동안 행사 때보다 많은 국내·외 갤러리 102곳이 참여하고,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 갤러리는 창설 첫해인 2010년 50여곳, 2011년 70여곳, 2012년 80여곳이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쿠팡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활용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보다 관람객들이 늘었다고 행사가 성공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아트페어가 각종 미술품을 거래하는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트광주13은 흥행에 참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일부 지역 작가들은 고정 컬렉터들에 의해 미술품을 판매하기는 했지만 대구 등 타지역에서 광주를 찾은

일부 컬렉터들은 작품을 한점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서 광주를 찾은 화랑 관계자는 "4~5년 전에 아트페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아트페어들이 생겨난 것도 문제지만 광주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곳도 없다"며 "올해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고 광주를 찾았지만 지난 2010년과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 관계자도 "문의는 이따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할 컬렉터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불경기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아트페어가 열려 행사 분위기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조직위 관계자들이 기업 후원과 임직원 판매에만 급급해 정작 미술품을 구매할 컬렉터들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을 제외한 타지역 관람객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올해도 어김없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작품을 구매한 광주시립미술관이 '아트광주'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부스 운영에서도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 조직위는 올해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료 부스를 없애면서 부스비(200만~300만원)를 내거나 부스비 대신 작품 판매금액의 1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갤러리들이 작품 거래 사실을 숨기면서 작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직위 자체적으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미있는 디자인 향연 '만끽'... 작품 파손 관람문화 '쌘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주말 풍경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개막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75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작품들을 관람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대체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개막 이틀 만에 시민체험형 작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보상을 놓고 관람객과 자원봉사자의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의 부주의로 작품 파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눈에 띄고 있다.

◇"쉽게 즐길 수 있어"=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개막 이후(6~8일) 모두 7500여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과 휴일 관람객(744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개막 첫날인 6일에는 전시장 오픈 1시간 전부터 광주 출신 한류스타 유노윤호의 일본 팬 8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유노윤호가 이우진 작가와 함께 만든 휴대전화 케이스, 머그컵, 찻잔세트, 접시 등 5000여만원 상당의 아트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재단 앞 황승준 건축가의 작품 '아트 승강장'에서 광주 첨단고 학생 60여명이 자석을 이용해 '세계를 품은 무등'이라는 주제로 무등산 그림을 그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7~8일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시민체험형 작품 'Funery:Fun+Energy'와 '콩다공 어린이집'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최고 인기 전시였다. 동양화를 모티브로 한 호텔 컨셉의 '동양화 모티브 공간 디자인'과 일본 유명 건축가 구마 겐코의 작품 '낭향낭향', 비엔날레 야외 광장 정원 '발을 디자인하다'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시민들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두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최정미(여·34)씨는 "올해 비엔날레는 아이들도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작

품이 많아 지인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라며 "비엔날레 기간 변화된 정월 디자인 공간을 감상하기 위해 행사가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람 문화 부족한 '문화 시민'=광주가 '문화 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 시민들의 관람문화는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치를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도슨트는 "관람객들에게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도 일부 시민들이 어린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시민체험형 작품인 'Funery:Fun+Energy'에서는 시민과 자원봉사자 간 말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관람객들이 직접 자전거 페달을 돌려 기둥에 불을 밝히는 '함께 나누는 라이팅 트리'를 체험하던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던 중 손잡이가 파손됐고, 보상을 요구하는 자원봉사자와 어린이 부모의 말다툼이 이어진 것. 특히 'Funery:Fun+Energy'전에서는 개막 사흘 만에 '가늘고 하얀 선', '순수고백' 등 전체 5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파손돼 시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자원봉사자가 대응을 잘못해 즉시 사과를 했다"며 "시민체험형 전시 작품 파손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유노윤호 일본팬 80여명

5000여만원 아트상품 구매 눈길

'Funery:Fun+Energy' 등

가족단위 관람객 인기

주말·휴일 관람객 7500여명

체험형 작품 고장·센서 오작동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 앤틱/모던

식탁/TV장

자하 2층~5층 가구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